ISSN 2733-8258

국가미래전략 Insight

Vol. 11
2021. 01. 21

www.nafi.re.kr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 문 주 (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

국가미래전략
Insight

2021. 01. 21

Vol. 11

ISSN	2733-8258
발행일	2021년 01월 21일
발행인	김현곤
발행처	국회미래연구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Fax 02-786-3977

「국가미래전략 Insight」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격주 1회 발행하는 단기 심층연구결과로서, 내부 연구진이 주요 미래이슈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국가의 미래전략을 제시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국회미래연구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밝힙니다.

Contents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1]

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성문주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의 개념
Ⅲ.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현황 진단
Ⅳ. 심리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정책 과제
Ⅴ.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정책 과제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1 본 브리프는 2020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과제인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전략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됨.

요 약

▶ 본 연구는 혁신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에 대한 관점의 확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사람의 역량에서 비롯되는 자본의 확충을 위해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심리자본, 사회자본을 균형적이고 총체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이들 간의 작용을 통해 보다 더 효과적으로 국가의 목표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임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며,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이 사람의 역량에서 비롯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향상하기 위해 교육 분야에서 어떠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는지 살펴보았다.

▶ 먼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의 현 수준을 진단한 결과,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을 전반적으로 향상해야 할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특히 회복탄력성과 참여 및 네트워크, 공적신뢰 수준이 낮게 나타나 이들의 유의미한 향상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의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 향상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으며,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대학교육의 역할 강화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본 연구는 이러한 현황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교육 분야에서 요구되는 정책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 초중등교육에서 다양한 평가방식과 평가준거 도입 및 교실 수준 학생평가와 국가 수준 학생평가의 기능 이원화
- 초중등교육에서 국가 교육과정 개발 및 학교 교육과정 결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 기회 확대
- 대학교육에서 대학생의 심리자본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 및 정보공유와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대학의 역할 강화
- 성인 대상 회복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및 접근성 향상
- 일터에서 무형식 사회학습을 강화하는 학습조직 구축 및 활성화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대한민국은 무형의 자본이 중요한 국가이며, 현재와 같은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인적자본이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그러나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급속한 환경변화와 함께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국가 전략의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또한, 그동안의 눈부신 경제성장에 비해 국민들의 삶의 질에는 실제적인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개인과 사회가 체감할 수 있는 진정한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에 초점을 둔 자본에 대한 관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혁신성장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행복 수준을 유의미하게 향상하기 위해서는 자본에 대한 관점의 확장이 필요하다. 최근 연구[2]들은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이 필수적이며, 혁신이나 창의성의 증진을 위해 이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3]에 의해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이 개인의 행복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개발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자본에 관한 정책적 관심을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으로 확장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인적자본과 심리자본, 사회자본을 균형적으로 확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서는 인적자본과 마찬가지로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다. 심리자본은 인간의 발달단계별 향상 전략이 필요하며, 사회자본은 개인에게 귀속되는 역량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에서 존재하는 자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본을 축적하고 확충하는 데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히,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이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의 사람의 역량에 관련된 것이므로 이러한 자본의 확충을 위해서는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해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한 전략을 탐색하기 위해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자본 및 사회자본 수준에 대한 현황을 진단하고,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을 확충하기 위한 교육 분야에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Ⅱ.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의 개념

1. 심리자본[4]

■ 정의: 희망,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성이 높은 개인의 건강하고 긍정적인 심리발달 상태[5]

2 예: 김은실·백윤정 (2014), 김형진·심덕섭(2013), Luthans et al.(2004b)
3 예: 전선영(2019), 최예나·김이수(2015), Hosen(2003)
4 '긍정심리자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함.
5 Luthans et al. (2004a)

■ 구성요소[6]

- 희망: 목표를 추구하는 의지와 목표 달성을 위한 경로 설계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종합적인 인지적 상태[7]
- 자기효능감: 주어진 상황에서 요구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하고, 인지적 자원을 마련하며, 여러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믿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신념[8]
- 회복탄력성: 스트레스나 어려운 상황에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회복하여 제자리로 돌아오는 능력[9]
- 낙관성: 긍정적인 사건들은 내부로, 부정적인 사건들은 외부로 귀인함으로써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를 갖는 심리 특성[10]

2. 사회자본[11]

■ 정의: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에서 파생되어 개인 또는 공공에 이익이 되는 무형의 자본[12]

■ 구성요소[13]

- 신뢰: 본 연구에서는 신뢰를 사적신뢰와 공적신뢰로 세분화하여 현황을 진단함.
  - 사적신뢰: 가까운 관계에 있는 개인에 대한 신뢰[14]
  - 공적신뢰: 사회제도나 사회단체에 대한 신뢰[15]
- 규범: 사회를 구성하는 시민으로서 법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식[16]
- 참여: 자발적으로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정도[17]
- 네트워크: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관계망[18]

6 Luthans et al. (2004a)
7 Snyder et al.(1991)
8 Wood & Bandura(1989)
9 Smith et al.(2008)
10 Carver et al.(2010), Luthans & Youssef-Morgan(2017)
11 '사회적 자본' 이라는 용어로도 사용함.
12 김희삼(2017) p.22
13 박혜영·김정주(2012)
14 이재혁(2006), Pagden(1988)
15 이재혁(2006), Pagden(1988)
16 정갑영·김동훈(2019)
17 정갑영·김동훈(2019)
18 박혜영·김정주(2012)

Ⅲ.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현황 진단

·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현황을 진단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1. 연구방법

가. 연구대상

- 전국 만 19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19]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 실시
- 표본은 지역별·연령별·성별 모집단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추출
- 최종적으로 1,016개의 자료가 분석에 활용

나. 자료수집 방법

-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온라인 패널을 활용
- 2020년 하반기에 설문조사 실시

다. 측정도구

-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의 구성요소를 변수로 설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측정도구를 사용함.
- 6점 척도(1점: 전혀 그렇지 않다, 2점: 그렇지 않다, 3점: 조금 그렇지 않다, 4점: 조금 그렇다, 5점: 그렇다, 6점:매우 그렇다)를 사용하여 각 문항이 평소 자신의 모습이나 생각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정도에 표시하도록 함.

구분	변수	측정내용	문항 수	출처
심리자본	희망	- 목표 추구 - 미래 준비 -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인식 -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 도출 - 문제해결 방법 도출	8	■ 원본: Snyder et al. (1991) ■ 번역본: 최유희 외(2014)
	자기효능감	- 스스로 세운 목표 대부분 달성 -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적인 수행 - 중요한 것을 얻을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 - 여러 가지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	8	■ 원본: Chen et al. (2001) ■ 번역본: 노지혜(2005)

19 7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온라인 조사 참여가 어려워 면접조사를 해야 하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면접조사가 불가능하여 제외됨.

구분	변수	측정내용	문항 수	출처
심리 자본	회복탄력성	– 어려운 일에서 빠른 회복 – 스트레스를 크게 힘들지 않게 견디고 회복 – 인생의 좌절을 빨리 극복	6	■ 원본: Smith et al. (2008) ■ 번역본: 임태홍 (2014)
	낙관성	– 불확실한 상황에서 최상의 결과 기대 – 긍정적인 면에 초점 – 미래에 대한 낙관적 인식 – 노력하면 성공할 것이라 기대 – 새로운 일에 성공을 기대	6	■ 원본: Chang et al. (1997) ■ 번역본: 임태홍 (2014)
사회 자본	사적신뢰	– 가족 신뢰 – 친척 신뢰 – 이웃 신뢰 –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 (친구, 직장동료 등) 신뢰	4	■ 세계가치관조사 한국어판 (2010)
	공적신뢰	– 중앙정부 신뢰 – 국회 신뢰 – 법원 신뢰 – 지방자치단체 신뢰 – 보건당국 신뢰 –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의 질 – 대학교육의 질 – 대기업 – 중소기업 – 노동조합단체 – 시민단체 – 언론	12	■ 세계가치관조사 한국어판 (2010)
	규범	– 법질서 준수의 당위성 – 무임승차의 정당화 가능 정도 – 탈세의 정당화 가능 정도 – 폭력의 정당화 가능 정도	4	■ 김태준 외 (2009) ■ 세계가치관조사 한국어판 (2010)
	참여	– 종교단체에 소속되어 단체활동 참여 – 친목단체에 소속되어 단체활동 참여 – 정당에 소속되어 정당활동 참여 – 노동단체에 소속되어 단체활동 참여 – 시민단체에 소속되어 단체활동 참여 –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가입하여 활동	6	■ 세계가치관조사 한국어판 (2010)
	네트워크	– 친척, 친구, 이웃과 자주 교류 – 또래와 비교 시 사교활동 참여 정도 – 사적인 문제 상의할 사람	3	■ 김태준 외 (2009)

라. 자료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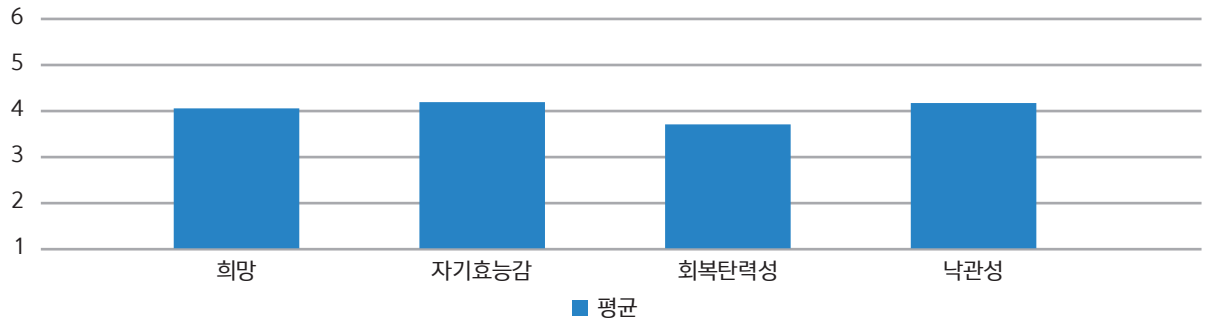
– 변수별 기술통계 및 Pearson 상관분석,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함.

2. 연구결과

가. 심리자본의 수준

- 희망,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성의 수준(그림 1)은 6점 척도에서 평균 약 4점 혹은 그 이하로 나타나 심리자본 전반에 대한 수준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자기효능감(M=4.13) 및 낙관성(M=4.12)의 수준이 다른 심리자본 변수의 수준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뒤이어 희망의 수준(M=4.01)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회복탄력성 수준(M= 3.85)의 경우 심리자본의 구성요소 중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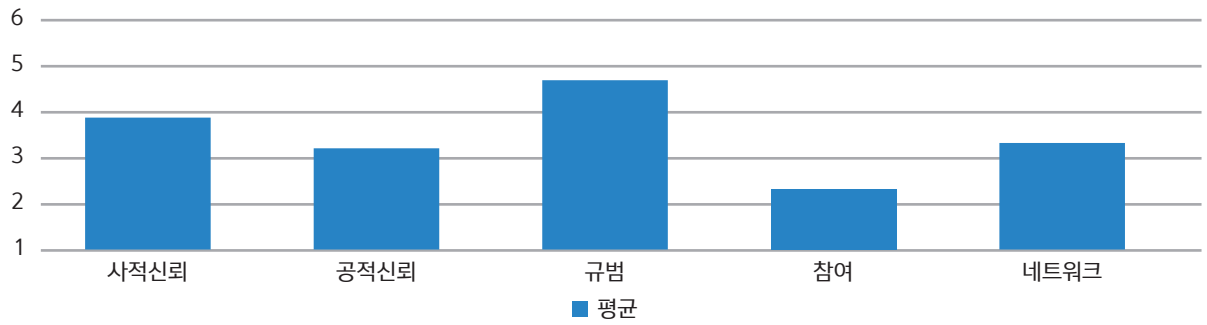
[그림 1] 심리자본 변수의 수준



나. 사회자본의 수준

- 사적신뢰, 공적신뢰, 규범, 참여, 네트워크 변수의 수준(그림 2)은 6점 척도에서 규범을 제외하고, 평균 4점 이하 혹은 3점이나 2점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나 사회자본 전반에 대한 수준 향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규범의 수준(M=4.81)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사적신뢰(M=3.91), 네트워크(M=3.32), 공적신뢰(M=3.2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자본 관련 변수 중 참여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남(M=2.38).

[그림 2] 사회자본 변수의 수준



다.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의 상관관계

- 심리자본의 구성요소인 4개 변수 모두가 사회자본의 구성요소인 변수 중 사적신뢰 및 네트워크와 보통 수준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냄(표 1). 즉, 사적신뢰와 네트워크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자본의 구성요소인 희망,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성의 수준도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상관관계 분석결과를 종합할 때, 규범을 제외하고[20], 대체로 사회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자본의 수준도 높다 혹은 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을수록 사회자본의 수준도 높다고 할 수 있음.

[표 1] 심리자본 변수와 사회자본 변수 간 상관관계

	희망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성	사적신뢰	공적신뢰	규범	참여	네트워크
희망	1								
자기효능감	.830**	1							
회복탄력성	.741**	.682**	1						
낙관성	.813**	.777**	.691**	1					
사적신뢰	.541**	.443**	.547**	.540**	1				
공적신뢰	.399**	.321**	.400**	.368**	.591**	1			
규범	.167**	.187**	.118**	.184**	.129**	.000	1		
참여	.349**	.280**	.345**	.302**	.408**	.571**	−.160**	1	
네트워크	.511**	.446**	.445**	.473**	.497**	.451**	0.059	.585**	1

***p<.001

라.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의 차이

1) 교육수준별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의 차이

- 교육수준별 심리자본 수준의 분석(표 2)에서 희망,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성의 모든 심리자본의 수준에서 교육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
- 종합적으로, 응답자 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심리자본 수준에 관한 결과는 대체로 대학원 졸업자가 비교집단에 비해 높은 심리자본 수준을 나타냄. 4년제 대졸의 경우는 자기효능감을 제외하고 2년제 대졸, 고졸, 중졸이하와 심리자본의 수준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음.

20 규범이 심리자본의 구성요소들과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은 실제로 규범이 심리자본 변수들과 연관성이 낮기 때문이거나 혹은 본 연구에서 규범의 평균이 다른 변수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일 수 있음.

[표 2] 교육수준별 심리자본 수준(평균) 비교

변수	교육수준	인원	평균	표준편차	F/P	교육수준별 심리자본 평균 비교[21]
희망	중졸 이하	17	3.83	1.08	7.404** (<.001)	· 대학원졸[22] > 고졸, 2년제 대졸, 4년제 대졸
	고졸	224	3.86	0.913		
	2년제 대졸	125	3.89	0.868		
	4년제 대졸	532	4.03	0.821		
	대학원졸	118	4.39	0.735		
자기효능감	중졸 이하	17	3.65	0.876	8.175** (<.001)	· 대학원졸 > 중졸이하, 고졸, 2년제 대졸 · 4년제 대졸 > 고졸
	고졸	224	3.96	0.877		
	2년제 대졸	125	4.02	0.9		
	4년제 대졸	532	4.17	0.827		
	대학원졸	118	4.42	0.752		
회복탄력성	중졸 이하	17	3.75	1.335	3.987* (.005)	· 대학원졸[23] > 고졸, 4년제 대졸
	고졸	224	3.71	1.094		
	2년제 대졸	125	3.94	0.974		
	4년제 대졸	532	3.82	1.025		
	대학원졸	118	4.18	0.814		
낙관성	중졸 이하	17	3.93	0.947	3.090* (.015)	· 대학원졸[24] > 고졸
	고졸	224	4.04	0.895		
	2년제 대졸	125	4.09	0.904		
	4년제 대졸	532	4.12	0.855		
	대학원졸	118	4.37	0.821		

*p<.05, **p<.001

· 교육수준별 사회자본 수준의 분석에서는 심리자본의 수준과는 달리 모든 유형의 사회자본의 수준에서 응답자 본인의 교육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2) 소득수준별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의 차이

· 소득수준(월평균 가구소득 기준)별 심리자본 수준 분석(표 3)에서 모든 심리자본 구성요소-희망,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성-에서 소득수준에 따른 심리자본 수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

  - 대체로 소득이 낮은 집단이 소득이 높은 집단에 비해 심리자본의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남.

21 Scheffe 혹은 Games-Howell 사후검증에서 유의하게 나타난 평균간 차이. 이하 다른 표 모두 동일.
22 중졸이하 집단의 평균과 대학원졸 집단의 평균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사후검증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이는 중졸이하 집단의 적은 사례수(인원) 및 비교적 큰 표준편차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3 중졸이하 집단과 대학원졸 집단과의 평균차이 관련하여 상기 해석과 동일함.
24 중졸이하 집단과 대학원졸 집단과의 평균차이 관련하여 상기 해석과 동일함.

[표 3] 소득수준별 심리자본 수준(평균) 비교

변수	소득수준 (단위:만원)	인원	평균	표준편차	F/P	소득수준별 심리자본 평균 비교
희망	200 미만	98	3.5	0.975	12.307** (<.001)	· 200미만 < 200~300 제외한 모든 비교 집단 · 200~300 < 600~800, 800~1,000 · 300~500 <800~1000
	200~300	130	3.82	0.797		
	300~500	329	3.99	0.851		
	500~600	153	4.09	0.772		
	600~800	173	4.18	0.79		
	800~1,000	93	4.34	0.799		
	1,000 이상	40	4.31	0.778		
자기효능감	200 미만	98	3.61	1.004	12.672** (<.001)	· 200미만 < 200~300 제외한 모든 비교 집단 · 200~300 < 600~800, 800~1,000, 1000 이상 · 300~500 < 800~1,000, 1,000이상
	200~300	130	3.96	0.81		
	300~500	329	4.08	0.871		
	500~600	153	4.23	0.759		
	600~800	173	4.29	0.753		
	800~1,000	93	4.43	0.746		
	1,000 이상	40	4.47	0.695		
회복탄력성	200 미만	98	3.35	1.105	9.202** (<.001)	· 200미만 < 200~300 제외한 모든 비교 집단 · 200~300 < 800~1,000
	200~300	130	3.58	0.962		
	300~500	329	3.84	1.027		
	500~600	153	4	0.974		
	600~800	173	3.95	1.033		
	800~1,000	93	4.22	0.899		
	1,000 이상	40	4.13	0.807		
낙관성	200 미만	98	3.63	0.972	9.688** (<.001)	· 200미만 < 200~300 제외한 모든 비교 집단 · 200~300 < 800~1,000
	200~300	130	3.93	0.888		
	300~500	329	4.13	0.851		
	500~600	153	4.2	0.815		
	600~800	173	4.24	0.837		
	800~1,000	93	4.43	0.741		
	1,000 이상	40	4.34	0.821		

*p<.05, **p<.001

· 소득수준(월평균 가구소득 기준)별 사회자본 수준 분석(표 4[25])에서 사회자본 중 사적신뢰, 규범, 네트워크에서 응답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수준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남. 공적신뢰와 참여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

25 평균 차이가 유의한 사회자본 구성요소만 포함함

- 특히, 사적신뢰와 네트워크 수준은 월평균 가구소득 최하위 집단(200만원 미만)이 월평균 가구소득 차하위 집단(200~300만원) 및 최상위 집단(1,000만원 이상)을 제외한 다른 비교집단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수준을 나타냄.

[표 4] 소득수준별 사회자본 수준(평균) 비교

변수	소득수준 (단위:만원)	인원	평균	표준편차	F/P	소득수준별 사회자본 평균 비교
사적신뢰	200 미만	98	3.55	0.856	4.828** (<.001)	· 200 미만 < 300~500, 500~600, 600~800, 800~1,000
	200~300	130	3.86	0.757		
	300~500	329	3.96	0.84		
	500~600	153	3.92	0.802		
	600~800	173	3.98	0.824		
	800~1,000	93	4.12	0.724		
	1,000 이상	40	3.87	0.735		
규범	200 미만	98	4.62	0.817	2.661* (.014)	-
	200~300	130	4.87	0.706		
	300~500	329	4.76	0.734		
	500~600	153	4.87	0.776		
	600~800	173	4.93	0.693		
	800~1,000	93	4.71	0.81		
	1,000 이상	40	4.87	0.776		
네트워크	200 미만	98	2.84	1.153	4.508** (<.001)	· 200 미만 < 300~500, 500~600, 600~800, 800~1,000
	200~300	130	3.25	1.192		
	300~500	329	3.33	1.064		
	500~600	153	3.36	1.053		
	600~800	173	3.45	1.117		
	800~1,000	93	3.56	1.025		
	1,000 이상	40	3.43	1.089		

*p<.05, **p<.001

3) 성장배경(청소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의 차이

· 성장배경 중 청소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심리자본의 수준 분석(표 5)에서는 모든 심리자본 유형-희망, 자기효능감, 회복탄력성, 낙관성-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냄.

· 대체로 청소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았던 경우가 청소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간이었거나, 낮거나 매우 낮았던 경우보다 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청소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간이었던 경우가 청소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거나 매우 낮은 경우보다 심리자본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청소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매우 낮았던 집단과 높았던 집단의 격차는 매우 큰 편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 청소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매우 낮았던 집단의 경우 높았던 집단의 경우에 비해, 희망의 수준은 평균 0.73만큼, 자기효능감의 수준은 평균 0.83만큼, 회복탄력성의 수준은 평균 0.95만큼, 낙관성의 수준은 평균 0.79만큼 낮아 두 집단 간 심리자본 수준에 큰 격차를 보였음.

[표 5] 성장배경–청소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심리자본 수준(평균) 비교

변수	가정의 경제적 수준	인원	평균	표준편차	F/P	청소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 심리자본 평균 비교
희망	매우 낮음	80	3.6	1.072	13.094** (<.001)	· 높음 > 낮음, 매우 낮음 · 중간 > 낮음, 매우 낮음
	낮음	323	3.87	0.859		
	중간	474	4.09	0.78		
	높음	130	4.33	0.805		
	매우 높음	9	4.03	0.903		
자기효능감	매우 낮음	80	3.66	1.143	13.457** (<.001)	· 높음 > 중간, 낮음, 매우 낮음 · 중간 > 낮음, 매우낮음
	낮음	323	3.99	0.837		
	중간	474	4.2	0.789		
	높음	130	4.49	0.708		
	매우 높음	9	4.03	0.856		
회복탄력성	매우 낮음	80	3.29	1.26	11.812** (<.001)	· 높음 > 중간, 낮음, 매우 낮음 · 중간 > 낮음, 매우낮음 · 낮음 > 매우낮음
	낮음	323	3.72	1.06		
	중간	474	3.93	0.948		
	높음	130	4.24	0.839		
	매우 높음	9	3.85	1.113		
낙관성	매우 낮음	80	3.66	1.153	12.292** (<.001)	· 높음 > 중간, 낮음, 매우낮음 · 중간 > 낮음, 매우낮음
	낮음	323	4.01	0.879		
	중간	474	4.18	0.804		
	높음	130	4.45	0.746		
	매우 높음	9	4.31	0.637		

**p<.001

· 성장배경 중 청소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회자본의 수준 분석(표 6)에서는 규범을 제외한 모든 사회자본 구성요소–사적신뢰, 공적신뢰, 참여, 네트워크–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남.

· 대체로 청소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낮았던 경우나 매우 낮았던 경우가 청소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았던 경우에 비해 낮은 사회자본 수준을 나타냄.
  – 특히, 참여와 네트워크의 수준은 청소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매우 낮았던 집단이 청소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았던 집단에 비해 참여 수준은 평균 0.97, 네트워크의 수준은 평균 1.09만큼 낮게 나타남.

- 그러므로, 참여와 네트워크의 수준에 있어 경제적 빈곤층에서 자란 사람과 경제적 수준이 높은 계층에서 자란 사람 간의 격차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공적신뢰, 참여, 네트워크의 현재 수준에 있어서 청소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중간이었던 경우는 청소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이 높았던 경우보다 낮은 수준을 나타냄.

[표 6] 성장배경-청소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따른 사회자본 수준(평균) 비교

변수	가정의 경제적 수준	인원	평균	표준편차	F/P	청소년기 가정의 경제적 수준별 사회자본 평균 비교
사적신뢰	매우 낮음	80	3.63	0.954	7.203** (<.001)	· 높음 > 낮음, 매우낮음 · 중간 > 매우낮음
	낮음	323	3.81	0.885		
	중간	474	3.96	0.748		
	높음	130	4.16	0.727		
	매우 높음	9	4.02	0.71		
공적신뢰	매우 낮음	80	3.02	0.978	7.205** (<.001)	· 높음[26] > 중간, 낮음, 매우낮음
	낮음	323	3.14	0.874		
	중간	474	3.29	0.894		
	높음	130	3.59	0.993		
	매우 높음	9	3.12	1.1		
참여	매우 낮음	80	1.97	0.988	11.124** (<.001)	· 높음[27] > 중간, 낮음, 매우낮음 · 중간 > 매우낮음
	낮음	323	2.27	1.001		
	중간	474	2.38	1.111		
	높음	130	2.94	1.386		
	매우 높음	9	2.31	1.168		
네트워크	매우 낮음	80	2.72	1.138	16.044** (<.001)	· 높음 > 중간, 낮음, 매우 낮음[28] · 중간 > 매우 낮음 · 낮음 > 매우낮음
	낮음	323	3.17	1.076		
	중간	474	3.38	1.073		
	높음	130	3.81	1.04		
	매우 높음	9	4.11	1		

**p<.001

마. 연구 결과의 정책 시사점

· 심리자본 구성요소 중 회복탄력성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나,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며, 심리자본 구성요소는 서로 높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공통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26 '매우 높음' 집단의 평균과 '높음' 집단의 평균 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실제 사후검증에서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음. 이는 '매우 높음' 집단의 적은 사례수(인원) 및 비교적 큰 표준편차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음.

27 '매우 높음' 집단의 평균과 '높음' 집단의 평균차이 관련하여 상기 해석과 동일함.

28 '매우 높음' 집단과 '매우 낮음'집단의 평균차이 관련하여 상기 해석과 동일함.

- 사회자본 구성요소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이중 참여의 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고, 네트워크와 공적신뢰 수준도 비교적 낮게 나타남. 사회자본 수준을 공통적으로 향상할 수 있는 정책과 특히, 참여, 네트워크, 공적신뢰의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함.
- 저소득층의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이 특히 낮게 나타나, 이를 향상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함.
- 대학교육[29]과 심리자본 수준 및 사회자본 수준 간의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학교육이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 향상을 위해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Ⅳ. 심리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정책 과제

-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심리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 과제 중 심리자본 현황 진단 결과의 정책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과제를 제시함.

1. 초중등교육에서 다양한 평가방식과 평가준거 도입

- 현재와 같은 학업 중심의 상대평가 체제에서는 대부분의 학생이 실패경험을 축적하게 되고, 반복적인 실패는 학습된 무기력 등으로 인해 실패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없게 하며, 회복탄력성과 자기효능감, 희망, 낙관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침.
- 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성공 경험과 실패를 통한 성장 경험을 축적하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평가방식과 준거가 마련되어야 함.

2.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복지 강화

-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이 가정과 학교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과 무력감을 줄이고, 학습 성공경험을 축적하여 긍정심리를 향상하도록 지원해야 함.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의 심리자본 향상을 위한 부모교육 및 교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

29 학부과정을 의미함.

3. 대학생의 심리자본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현재 대학에서 운영하는 대학생의 정신건강을 위한 기관은 주로 정신건강의 부정적인 측면을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어, 긍정심리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공해야 함.
- 심리자본 향상 프로그램과 진로 탐색 프로그램의 연계를 통해 심리자본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이 삶의 의미와 목표를 탐색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준비하도록 지원해야 함.

4. 성인 대상 회복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의 운영 및 접근성 향상

- 성인기에는 가족 간 갈등, 직장 내 인간관계, 업무 스트레스,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일자리 상실 등이 회복탄력성의 위험요인이므로 이를 예방적으로 중재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함.
- 근로자 지원프로그램에 회복탄력성 및 긍정심리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직장에 소속되지 않은 일반 성인들도 쉽게 접근가능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함.

Ⅴ.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정책 과제

-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제시한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 과제 중 사회자본 현황 진단 결과의 정책 시사점을 바탕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 과제를 제시함.

1. 초중등교육의 국가 교육과정 개발 및 학교 교육과정 결정 과정에 학생의 참여 기회 확대

- 학습의 내용과 방식의 결정 과정에 학생들의 의견 반영을 통해 '주어진 교육과정'으로부터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상시적인 평가 의견이 개진·수렴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신뢰 및 참여의식을 향상하도록 해야 함.

2. 초중등교육의 교실수준 학생평가와 국가수준 학생평가의 기능 이원화

- 평가체제는 단순히 학업성취의 측정·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의 가치, 자신과 타인에 대한 태도, 행동 양식, 규범 등을 형성하는 역할을 하므로 평가체제의 개편을 통해 평가가 서열화가 아닌 학생-학생, 학

생-교사, 학생-학교 간 신뢰를 촉진하고 상호호혜성 및 학습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함.

- 이를 위해, 교실 및 학교수준의 평가는 교과 핵심개념 형성평가 및 범교과역량 평가가 되어야 하며, 개별 학생의 학습에 대한 질적 특성 확인 및 학습과정 중심의 평가가 되어야 함. 이를 위해 수업 담당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여야 함.
- 시·도교육청 혹은 국가수준의 평가는 기초핵심능력과 기초학력을 평가해야 하며, 평가 결과가 개별 학급에서의 교수-학습 활동을 조정하지 않도록 해야 함.

3.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를 촉진하는 대학의 역할 강화

- 대학은 인적자원, 사회적 자원, 문화적 자원이 다양하게 교류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와 사회구조가 형성되어 사적 신뢰 및 공적 신뢰 형성이 비교적 용이하므로, 지역사회, 교수-학부모-학생 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촉진하고 정보공유의 장이 되어야 함.
- 학생-학생, 졸업생-학생, 교수-학생, 지역사회 전문가-학생 간의 진로지도나 멘토링으로 연결된 경력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학생들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하며, 이는 학생들의 인적자본 강화로도 연결될 수 있음.

4. 취약계층에 대한 초중등학교 및 대학의 지원체계 마련

- 저성취학생의 누적된 학습결손은 학교 부적응을 통하여 공동체 의식과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학습결손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처치할 수 있는 에듀테크 기반 기초학력 진단 및 지원시스템의 개발과 활용이 필요함.
- 개인이 속한 가정의 사회적 자본은 향후 개인의 사회적 자본 확대로 이어지나, 취약계층의 경우 이러한 연결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멘토링을 통해 학생의 사회참여 수준을 높이고 네트워크가 강화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5. 일터에서 무형식 사회학습 강화하는 학습조직 구축 및 활성화

- 일터 내 학습공동체로서의 학습조직은 개인, 집단, 조직 전체의 수준에서 협력을 통한 학습 및 구성원 간 정보공유를 촉진하여 참여 수준 향상 및 상호호혜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며 신뢰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음.
- 재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의 학습조직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강화가 필요함.

Ⅵ.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혁신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가 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으로 자본에 대한 관점이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향후 자본의 확충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 시 사람의 역량으로부터 형성되는 자본으로서 인적자본, 심리자본, 사회자본을 총체적으로 고려함으로써 이들 간의 작용을 통해 국가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의 확충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이 필요하며,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이 개인 혹은 집단 수준에서의 사람의 역량에 관련한 것이므로 이를 향상하기 위한 교육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의 현 수준을 진단하고,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교육 분야에서의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먼저,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어야 하며, 특히, 회복탄력성, 참여, 네트워크, 공적신뢰의 수준을 유의미하게 향상하기 위한 정책 추진이 필요한 것을 확인하였다. 회복탄력성은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실패를 통해 학습하며, 이를 혁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 상황의 극복을 위해서 미래사회에 필수적인 역량이다. 이러한 회복탄력성의 수준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중장기적으로 경제적·사회적 측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회복탄력성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할 것이다. 아울러, 참여와 네트워크는 사적신뢰와 공적신뢰의 수준을 향상시키고, 정책에 대한 신뢰와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 심리자본 수준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으므로 참여와 네트워크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의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에서 경제적 지위에 따른 불평등이 심화되지 않도록 저소득층의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교육 정책 및 교육-복지 연계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통해 대학교육이 대체로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 향상과 관련성이 높지 않은 것을 추론할 수 있었다. 대학교육이 인적자본뿐만 아니라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에 기여하도록 목표를 구체화하고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을 온라인 패널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를 통해 개인 수준에서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특성은 일반인의 특성과 다른 점이 존재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층의 경우 그 특성 간 차이점(예: 디지털 역량과 교육 수준)이 더 클 수 있다. 또한, 심리자본과 사회자본은 개인 수준뿐만 아니라 집단 수준에서의 측정도 필요할 것이다. 한편, 본 연구가 코로나 19 상황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응답결과가 이러한 상황에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코로나 19 상황이 종료된 이후 현황 진단을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편,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 실행 시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수준에 대한 주기적인 진단을 통해 이러한 정책 개입의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은실·백윤정 (2014). 긍정심리자본 및 사회적 자본과 개인 창의성의 관계. 한국인사관리학회, 제 38집 1권, 93-122.
2) 김태준, 최상덕, 장근영, 이기홍, 전주혜 (2009). 한국의 사회적 자본 실태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 한국교육개발원.
3) 김형진, 심덕섭. (2013). 심리적자본이 혁신행동에 미치는 영향. 대한경영학회지, 26(11), 3003-3028.
4) 김희삼 (2017). 사회자본에 대한 교육의 역할과 정책방향. KDI 연구보고서 2017-06. KDI.
5) 노지혜 (2005). 나는 왜 감사해야 하는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감사가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박혜영, 김정주(2012). 사회적자본이 지역주민의 만족도와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지역축제 참여주민을 대상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9권 제3호, 47-66.
7) 이재혁(2006). 신뢰와 시민사회 : 한미 비교연구. 한국사회학 40(5), 61-98.
8) 임태홍 (2014). 한국판 긍정심리자본척도(K-PPC) 타당화 검증. 코칭능력개발지, 제16권 3호, 157~166.
9) 전선영. (2019). 긍정심리자본이 행복과 고객지향성에 미치는 영향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조직문화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복지학, 71(3), 7-30.
10) 정갑영·김동훈 (2019). 사회적 자본 지수의 계측. 한국경제포럼, 제12권 제1호. 1-26.
11) 최예나, 김이수. (2015). 사회적 자본과 주민행복간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7(4), 53-78.
12) 최유희, 이희경, 이동귀 (2008). Snyder의 희망척도 한국 번역판의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제 22권 2호, 1-16.
13) 최익성·장영철 (2014). 긍정심리자본, 심리적 임파워먼트와 창의성의 관계에서 내재적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산학기술학회 제15권 제6호 3571-3586.
14) 함은혜, 백선희(2016). 고등학생 시민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경험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761-783.
15) Carver, C. S., Scheier, M. F., & Segerstrom, S. C. (2010). Optimism.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7), 879-889.
16) Chang, E. C., Maydeu-Olivares, A., & D'Zurilla, T. J. (1997). Optimism and pessimism as partially independent constructs: Relationship to positive and negative affectiv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23(3), 433-440.
17) Chen, G., Stanley, M., & Gully, D. E. (2001). Validation of a new general self-efficacy scale, Organizational Research Methods, 4(1), 62-83.
18) Hosen, R. (2003). Education and capital development: Capital as durable personal,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influences on the happiness of individuals, Education, 123(3). 496-513.
19) Luthans, Luthans, & Luthans (2004a).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Beyond human and social capital, Business Horizons, 47(1), 45-50.

20) Luthans, F., & Youssef, C. M. (2004b). Human, social, and now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management: Investing in people for competitive advantage, Organizational Dynanmics, 33(2), 143–160.

21) Luthans, F., & Youssef-Morgan, C. M. (2017). Psychological capital: An evidence-based positive approach. Annual Review of Organizational Psychology and Organizational Behavior, 4, 339–366.

22) Pagden, A. (1988). "The Destruction of Trust and Its Economic Consequences in the Case of Eighteenth-century Naples." pp.127~141 in D. Gambetta(ed.),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Oxford, UK: Basil Blackwell.

23) Smith, B. W., Dalen, J., Wiggins, K., Tooley, E., Christopher, P., & Bernard. J. (2008). The brief resilience scale: Assessing the ability to bounce back.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5, 194–200.

24) Snyder, C. R., Harris, C., Anderson, J. R., Holleran, S. A., Irving, L. M., Sigmon, S. T., & Harney, P. (1991). The will and the ways: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70–585.

25) Wood, R. E., & Bandura, A. (1989). Impact of conceptions of ability on self-regulatory mechanisms and complex decision mak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 407–415.

26) World Value Survey_Questionnaire_South Korea_2010. http://www.worldvaluessurvey.org/WVSDocumentationWV6.jsp 에서 다운로드 (2020년 3월 10일)

국가미래전략 Insight 발간현황

vol	제목	작성자	발행일
1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0.8.20
2	2050년 서른살, 민서가 바라는 미래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2020.9.3
3	2050 대한민국 미래와 정책의제	김홍범 (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9.17
4	더 많은 입법이 우리 국회의 미래가 될 수 있을까	박상훈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2020.10.15
5	고령화 대응 국가전략을 만드는 새로운 방법	김현곤 (국회미래연구원 원장)	2020.11.12
6	보존분배사회 전환을 위한 국민의 선택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정영훈 (국회미래연구원 전 연구위원)	2020.11.19
7	기후변화 영향 대응현황 및 제언 (국내 연구·정책에 대한 양적 비교를 중심으로)	김은아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11.26
8	디지털 전환에 따른 한국 경제사회 파급효과 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여영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2020.12.10
9	세계적 감염병 이후 사회 변화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혁신성장그룹장) 김유빈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지원실장)	2020.12.24
10	한국인의 미래 가치관 조사	민보경 (국회미래연구원 삶의질그룹장)	2021.1.7
11	심리자본과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진단 및 교육정책 과제	성문주 (혁신성장그룹 부연구위원)	2021.1.21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 222호
Tel 02-786-2190 / Fax 02-786-3977